

영어 분사파생부사의 한국어 번역

이 영 옥
(경희대)

1. 문제 제기

한국어와 영어는 기본적인 발음체계뿐만 아니라 어휘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적으로 서로 매우 상이한 언어로서 두 언어의 번역과정에서 무수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기본 문장 구성이 영어는 목적어가 문미에 출현하는 S-V-O언어인 데 비하여 한국어는 동사 또는 서술어가 문미에 출현하는 S-O-V언어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는 기계적인 어순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다른 한국어만의 대화상대에 관한 배려가 가미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영어에서는 청자의 사회적 위치, 친소관계, 나이, 성별 등의 문화적, 상황적 요소들과 상관없이 철수가 학교에 갔음을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Cheolsu went to school'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자와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문장이 가능한 것이다.

- (1) ㄱ. 철수는/가 학교에 갔습니다.
 ㄴ. 철수는/가 학교에 갔어요.
 ㄷ. 철수는/가 학교에 갔어.
 ㄹ. 철수는/가 학교에 갔다.
 ㅁ. 철수는/가 학교에 갔네/군/거든/는데/지(요).
 ㅂ. 철수는/가 학교에 갔답니다/단다.

(1)의 종결어미들은 각각 화자의 청자간의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친소 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문장 종결어미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우 문장종결어미가 헬리데이(Halliday 1985)가 대인관계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이라고 명명한 언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의 고유한 기능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지위, 친소, 상하관계 등을 반영한다. 영어에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번역시에 간과되기 쉽다. 사회적 지위, 친소, 상하관계가 언어 구조에 반영되는 식은 다르더라도 영어에도 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문법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다. 동사와 관련하여 문장종결어미를 변화시키거나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청자와 화자간의 상호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독자적인 어형변화를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부사를 비롯하여 기타 부사구나 부사절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분사에서 파생된 부사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장부사가 화자의 메타언어적 태도를 표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간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고 영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분사파생부사를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단순한 어순의 차이를 넘어 한국어와 영어 간에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언어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밝혀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특성과 문장종결어미를 통하여 표출되는 다양한 청자 화자 간의 상호관계나 메타언어적 표현이 영어원문의 번역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

1) 예문에서 사용된 다양한 종결어미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적 차이도 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록 할 것이다.

2. 부사의 분포에 반영된 한국어와 영어의 구문적 차이

영어에서 분사파생부사는 동사원형에 현재분사어미 *-ing* 또는 과거분사어미 *-ed*를 부착하여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부여한 후 여기에 다시 부사어미 *-ly*를 첨부하여 부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사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단일한 어휘의 형태로 동사나 다른 부사, 형용사들을 쉽게 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언어기재라 할 수 있다. 이들 분사파생부사는 여타 부사와 그 생성과 구조,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영어에서 파생되지 않고 순수부사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단독 어휘는 매우 드물어서 많은 경우 명사나 형용사로 전용되기도 한다. 영어의 경우 파생되지 않은 순수 독립부사는 다음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11가지 총 58개 정도인 것에 비하여 서정수(2005: 134)의 예들과 본 저자가 수집한 예들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제외하고도 무려 13가지 총 386여개의 비파생 단일부사가 조사되었다.³⁾

〈표 1〉 한국어와 영어의 비파생부사의 의미별 분포

	한국어 (부사의 수)	영어 (부사의 수)
의도	부러, 슛제, 왜, 일부러, 자진 (5)	why (1)

- 2)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과거분사어미를 *-ed*로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으나 영어 과거분사형태는 단순히 동사원형에 과거분사어미를 부착하는 방식 외에 *feel-felt*, *bear-born*, *give-given*과 같이 동사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ed*가 아닌 *-(e)n*과 같은 어미를 부착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 과거분사는 *-ed*를 부착한다고 할 때 이는 이들 다양한 형태의 과거분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겠다.
- 3) 한 개의 부사가 하나 이상의 의미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반전’ 항목으로 분류된 ‘다만’은 ‘강도’ 항목에도 해당되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표1의 예들은 물론 양언어의 비파생부사를 완벽하게 나열한 것은 아님을 밝히거니와 양 언어에서 발달된 비파생부사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대비시켜 봄으로써 상대적인 언어구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양태	가까스로, 가만가만, 갑자기, 거꾸로, 거저, 건듯, 겨우, 곧추, 굳이, 그냥, 그저, 기어코, 냉큼, 대뜸, 대판, 덩석, 딱, 똑바로, 마구, 막, 몰래, 몸소, 무조건, 무작정, 바로, 반드시, 백배 (사죄하다), 버럭, 별안간, 번갈아, 불끈, 비뚜로, 뻐뚜로, 살쩍, 살며시, 살포시, 선볼리, 설설, 손수, 쉬, 슬그머니, 슬며시, 슬쩍, 시나브로, 싹, 싹, 쑥, 쑥, 버젓이, 애지중지, 어물쩍, 얼렁뚱땅, 울바로, 우두커니, 울컥, 은근슬쩍, 자못, 잘, 잘못, 저절로, 절로, 절절, 정면, 제법, 중형무진, 직접, 쪽, 척, 축, 탁, 텅, 툇, 퍼뜩, 폭삭, 한갓, 함부로, 허투루, 화들짝, 활짝, 호지부지 (80)	alike, better, how, rather, right, so, well (7)
이합	고루, 골고루, 낱낱이, 따로, 몽땅, 별로, 별반, 비단, 아예, 죄(다), 한데, 함께, 혼자, 홀로 다만, 단, 단지, 딱, 오두마니, 오로지, 오직, 이만, 한갓 (23)	once, only, much, quite (4)
양보, 조건	비록, 아무리, 암만, 진작 막상, 만일, 만약, 일단, 자칫 (9)	if, whether, when (3)
거리, 공간, 방향	널리, 바싹, 바짝, 바투, 멀리, 멀찌기, 미처, 어디, 여기, 온통, 저기, 전부, 이리, 그리, 저리 (15)	abroad, aloft, ashore, askance, away, back, down, far, here, high, plumb, straight, there, up, where (15)
인용	가칭, 가히, 간히, 소위, 언필칭, 일명, 자칭, 설령, 설사 (9)	
진위	마치, 아마, 역시, 정말, 진정, 진짜, 천생, 필시, 흡사 (9)	
반전	고작, 그러나, 급기야, 다만, 대신, 도리어, 무려, 반면, 불과, 선볼리, 아니, 오히려, 정작, (하)여튼 (14)	instead
문장부사	게다가, 결국, 과연,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 급기야, 다만, 단, 대관절, 더구나, 더우기(나), 도대체, 도무지, 도저히, 만약, 만일, 모름지기, 물론, 무릇, 미상불, 보통, 비로소, 사실, 사실상, 설	even, (if), (instead), though (2)

	<p>마, 심지어, (아마), 아무튼, 어쨌든, 어차피, 이윽고, 일단, 정작, 즉, 차라리, 차마, 하물며, 하여간, 하필, 한편, 행여(나), 혹시, 혹여 (42)</p>	
시종, 차례	<p>계속, 급기야, 끝내, 내내, 내일, 당장, 드디어, 마냥, 마지막, 먼저, 모래, 미리, 사뭇, 앞서, 애시당초, 어제, 오늘, 우선, 원래, 원체, 제일, 조만간, 줄곧, 줄곧이, 지금, 쭉, 차후, 채, 추후, 처음, 최초, 최후, 향후</p> <p>기왕, 내내, 마냥, 문득, 벌써, 아까, 아직, 언제, 영, 오래, 올해, 요즈음, 이미, 이왕, 이제, 인제, 일시, 일찍, 잠깐, 잠시, 장차, 종일, 종내, 지레, 진작, 평생, 평소, 하루, 한참 (62)</p>	<p>already, early, first, long, now, second, still, then, third, tomorrow, when. yet (12)</p>
빈도, 속도	<p>가끔, 간혹, 거듭, 늘, 늘상, 다시, 더러, 또, 매년, 매번, 매양, 매일, 매주, (역시), 연신, 연일, 이따금, 자꾸, 자주, 재차, 종종, 줄창, 하루하루, 항상 (23)</p> <p>(갑자기), 갓, 곧, 곧바로, 곧장, 금방, 금세, 다짜고짜, 대뜸, 동분서주, (막), 문득, 바로, (별안간), 불현듯, 빨랑, 빨리, 선뜻, 아직, 어서, 얼른, 얼핏, 이내, 재깍, 접차, 즉각, 즉시, 차차, 차츰차츰, 후딱, 훗, 흘깃, 흘끗 (30)</p>	<p>again, ever, fast, just, never, soon, yet (7)</p>
수량	<p>가득, 거의, 거지반, 그득, 기껏, 다소, 담백, 대개, 대거, 대략, 대저, 대충, 더, 더욱, 덜, 듬뿍, 맨, 모두, 모조리, 몽땅, 부쩍, 삼삼오오, 실컷, 싹, 약, 약간, 얼마나, 일만큼, 일추, 잔뜩, 전면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전수, 좀, 조금, (죄다), 최대, 최소, 텅, 하나하나, 한, 한층, (혼자), 활짝, 훌쩍 (42)</p>	<p>almost, least, less, more, (much) (4)</p>
강도	<p>강력(히), 극히, 너무, (다만, 단, 단지), 도통, 된통, (마구), 매우, 몹시, 무척, 사뭇, 아주, 약간, 움팡 [스트레스가 움팡 쌓였다], (자뭇), 저의기, 절대, 정, 참, 텅, 펍, 한창, 함빡, 훗씬, 흠뻑, 흠씬 (23)</p>	<p>very, seldom (2)</p>

<표 1>에 나열된 이들 부사들은 거의 모두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이영옥 (2002)에서 논한 바 있는 명사중심적 성격의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특성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사어로 사용되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존재와 함께 다양한 부사어의 활용은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동사의 구성과 관련해서 양 언어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 이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부사어가 발달된 이유로 설정된 한국어의 동사중심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 또는 주어와 보어의 사이에 위치하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미에 출현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과 같은 여타 명사로 실현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동사 앞에 한번에 나열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구분하는 일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바, 문맥에서 이해가 가능한 명사들은 생략되기가 쉽다. 결국 명사의 출현빈도보다는 동사의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로 표현되는 구문들이 한국어에서는 동사구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의 예들 또한 두 언어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 ㄱ. If you want a longer line for people, issue fewer green cards.
사람들이 좀더 길게 줄을 서게 하려면 그린 카드를 좀 더 적게 발급하십시오.
- ㄴ. We live within easy reach of the station.
우리는 역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요.
- ㄷ. The risk decreased progressively with increasing amounts of coffee consumption.
위험은 커피소비량이 증가할 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 ㄹ. Smaller families lead to slower population growth.
가족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인구증가 속도도 감소하게 된다.
- ㅁ. The weather forecast predicts possible rain in the afternoon.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상의 각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의 영어 명사구문들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동사로 변환되고 그 과정에서 (2ㄱ, ㄴ)의 경우와 같이 형용사가 부사로 치환되거나 (2ㄷ, ㄹ, ㅁ)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사를 수식한 형용사나 분사

들이 주동사로 격상되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에 명사구문들은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구나 절의 형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3. 영어 분사파생부사

영어의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두 가지 분사 모두 -ly접미사를 첨부함으로써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사들이 다 부사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분사의 의미에 따라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파생부사⁴⁾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동사가 화행동사인가 비화행동사인가를 기준으로 분사파생부사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고 또다시 이들 화행동사 또는 비화행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파생부사가 화행동사의 분사에서 파생된 부사인지 비화행동사의 분사에서 파생된 부사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모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 (3) 동사 수식 분사파생부사의 범주
 - 1. 주동사가 화행동사인 경우
 - ㄱ. 주어화자의 화행을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 ㄴ. 주어 화자의 화행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사파생부사
 - 2. 주동사가 비화행동사인 경우
 - ㄱ.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 ㄴ.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과 부사

다음 각 절에서 이들에 관한 번역 문제를 논하기로 하겠다.

4) ‘역시’의 경우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면서 동시에 빈도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두 개의 의미범주에 포함시켰다. 물론 부사의 총합을 계산할 때 중복된 경우는 하나로 계산하였음을 밝힌다.

3.1 주어 화자의 화행을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영어에서는 제삼자가 발화한 문장을 전하는 인용구문의 경우 인용한 문장에 관하여 그 화자가 발화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러한 행동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동사를 기반으로 한 분사에 -ly접미사를 첨부하여 간결하게 화행동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때 화행동사 자체는 'say'가 일반적이며 분사파생부사가 화행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분사파생부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조사되었다.

- (3) accusingly, approvingly, complainingly, grudgingly, menacingly,
pleadingly, protestingly, reassuringly, reprovingly, warningly,
wheedlingly

이상의 분사파생부사는 기저동사들이 모두 화행을 지칭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say, speak, talk, tell등을 위시한 많은 화행동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사파생부사로 활용되는 화행동사들은 대부분 화행자체만이 아니라 특정 화행이 내포하는 특수한 의미를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즉 화행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화행동사들은 쉘(Searle 1983: 166)이 'locutionary, illocutionary, perlocutionary act'로 화행동사를 구분한 기준에 따르면 특정화행을 통해서 청자에게 화자가 의도하는 효과를 얻어내려는 illocutionary speech act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쉘은 이들 illocutionary act를 asserives, directives, commissives, declarations, expressives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세분하고 있다. 이들의 특성은 다시 각각 assertives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하는 행위이고, directives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commissives는 청자가 화자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이고, declarations는 발화행동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expressives는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출하는 행위라고 정리하였다.

화행동사와 함께 사용된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들은 이들 illocutionary acts 중 주로 asserives, directives, declarations들이다. 즉, 화자가 청자를 비난하는

행위(accurately)는 assertives이며, 화자가 청자에게 불평하고 (complainingly/grudgingly), 협박하고(menacingly), 어떤 것을 청원하고 (pleadingly), 항의하고(protestingly), 안심시키고(reassuringly), 경고하고 (warningly), 꼬드기는(wheedle) 행위들은 모두 directives이며, 인정한다 (approvingly)거나 거부하는(reprovingly) 것은 declaration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장들이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 (4) a. "You did it, Tom," she said accurately.
- b. "The ballet," says Elinore approvingly.
- c. "You always walk too fast for me," she said complainingly.
- d. "Please - try to find me seat on the plane, I must get home tonight," he said pleadingly.

이들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영어와 같이 단일한 파생부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동사를 포함한 구나 절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4) ㄱ. 비난하는 투로 / 비난조로 말하였다.
- ㄴ. 인정한다는 듯이 말하였다.
- ㄷ. 불평하듯이 말하였다.
- ㄹ. 애원하며 말하였다.

즉,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기존 부사들로서는 이와 같이 화행동사와 관련된 태도를 지칭하는 부사표현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나 절을 생성하여야 하는 바, 번역문의 문법적 구조는 원문과 상당히 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의미적으로도 한국어 번역에서 사용한 ‘... 하는 투로, ... 조로, 다는 듯이’ 등과 같은 메타 언어적 표현은 영어원문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결과가 되어 영어원문에 비해 덜 매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⁵⁾ 그렇다면 여기서 곧바로 ‘비난하였다, 인정하였다, 불평하

5) 여기서 익명의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비난조로’의 경우는 ‘비난’과 ‘조’가 합성된 단일 단어와 같은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구문상으로는 의미상으로 영어 원

였다’ 등의 동사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 원문에서 중심동사로 사용한 중립적 의미의 화행동사를 무시한 것이며 ‘비난하다, 인정하다, 불평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들, 즉 ‘accuse, approve, complain’ 등을 중심동사로 사용한 경우와 구별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제로 비난하는 행위는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비록 영어원문과 같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 태도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실제로 이들 동사들은 인용문에서보다는 원 발화자의 발화태도를 기술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화행을 전달하는 동사 ‘say’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불평하다’라는 동사는 화행동사로 직접인용문에서 사용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화행동사 ‘말하다’와 구분하여 ‘불평하며’라든지 ‘불평조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에서 단일동사 ‘complain’ 대신 굳이 분사파생부사를 추가로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중심어를 문장의 마지막에 두는 것이 문장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설득력이 있다는 문장구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사가 동사보다 앞에 출현해야 하는 한국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원칙인 바, 이를 한국어번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문장구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영어의 분사파생부사는 문맥에 따라, 즉 수식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많은 영어의 어휘들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 한국어의 대응어와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맥에 맞는 한국어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언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천어의 형식이 문맥에서 표현한 의미를 도착어에서도 그 문맥에 맞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요체인 것이다.

문의 ‘accusingly’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난하는 투로, 인정한다는 듯이, 불평하듯이, 애원하며’ 등은 원 동사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분사파생부사와 같은 부사적 성격을 갖기 힘들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품사로 대응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3.2 주어 화자의 화행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사파생부사

그 자체 화행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 화행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동사를 기반으로 한 분사파생부사도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화행동사 say를 비롯하여 admit, agree, ask, call, cry, respond, speak 등의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파생부사는 그 의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의미별로 화행동사를 수식하는 비언어행위 분사파생부사들을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영어 화행수식 분사파생부사의 의미별 분포

의미범주	분사파생부사의 예
화행에 수반된 외적인 행위의 특성	animatedly, cuttingly, guffawingly, gushingly, half-heartedly, haltingly, heartfully, heatedly, hurriedly, laughingly, mockingly, pointedly, repeatedly, ringingly, scathingly, scoffingly, smilingly, unreservedly,
화행으로 표현된 내적 감정이나 태도	amusedly, concernedly, confusedly, dazedly, delightedly, despairingly, disbelievingly, disconcertingly, disgustedly, disparagingly, distractedly, enterprisingly, excitedly, feelingly, flusteredly, interestedly, knowingly, spiritedly, unabashedly, unwittingly, wittingly, wonderingly, worriedly
화행의 효과	amusingly, comfortingly, condescendingly, confidingly, consideringly, convincingly, cunningly, disarmingly, encouragingly, infuriatingly, insultingly, invitingly, irritatingly, jokingly, movingly, obligingly, patronizingly, soothingly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에서 화행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파생부사의 종류와 빈도는 매우 높다. 이들 분사파생부사는 화행 자체의 외적인 특징을 부가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화행으로 표현된 내적인 감정이나 태도 등을 기술하는 경우, 그리고 화행이 청자에게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술하는 경우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의 경우처럼 화행의 성격을 재해석하기보다는 화행에 수반된 비언어적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며 이는

언어표현자체로는 표출되지 않는 원화자의 감정, 태도, 의도 등을 드러내 주므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하겠다. 실제로 어떤 말을 인용할 때 말 표현 자체보다는 그 말을 어떤 방식과 태도로 표현했는지가 원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준언어(paralanguage)의 기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들 분사파생부사에 대한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 다음의 예들을 보자.

- (5) a. "Apprehensive?" I echo disbelievingly.
 b. "I know. I know," he said despairingly.
 c. She said jokingly: "If I moved up here, I'd lose my tenuous grip on reality altogether!"
 d. "Hit and runs," Merry laughingly called them.

위의 각 문장들은 화행동사와 함께 분사파생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분사파생부사들은 인용된 문장을 발화하면서 동시에 표출된 원화자의 태도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화행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한 바, 한국어에는 영어에 상응하는 분사파생부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저동사를 활용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간략한 다른 품사를 활용하면 원문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사파생부사 부분만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6) ㄱ. 믿을 수 없다는 듯이 /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 믿을 수 없어서 / 믿기지가 않아서
 ㄴ. 낙담하여 / 낙담한 듯이
 ㄷ. 농담하듯이 / 농담으로 / 농담조로 / 농담 삼아
 ㄹ. 우스개로

화행동사로 치환될 수 없는 이들 분사파생부사에 대한 번역의 방법은 (6)에 보인 대로 *disbelievingly*나 *despairingly*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대응 동사 ‘믿다, 낙담하다’를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으나 *jokingly*의 경우에는 ‘농담하듯

이' 외에도 '농담'을 명사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간략한 번역이 가능하다. 'laughingly'의 경우에는 '웃으며'라고 동사 '웃다'를 활용하여 번역할 경우, 원문의 의미와는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오역이 된다. 이 경우 'laughingly'가 수식하는 화행동사의 성격에 따라 실제로 화행이 이루어지는 행동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는 '웃으며'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발화가 육성을 동반하여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laughingly'의 의미는 실제 웃으면서 그런 동작을 행하였다기보다는 '웃자고, 웃자는 의미로'에 더 가까우므로 ca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5d)의 경우에는 '우스개로' 정도의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현장에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한 화행동사 say, ask, remark, protest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웃으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다음과 같은 예와 비교된다.

- (7) a. It's bad if we can't take one day off, he said laughingly.
- b. Michael asked laughingly, hoping to make light of what had taken place.
- c. A fellow-passenger on the train to Botswana had laughingly remarked: You're going to Motebeng?
- d. Shooing her out of the kitchen, Rose gave a smile while Ellie laughingly protested.

3.3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제삼자의 언어행위를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 등으로 인용 보고하는 것은 언어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각 언어마다 언어행위 자체를 기술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장치가 발달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언어행위와 관련한 분사파생부사의 활용이었거니와, 비언어적 행위 또한 언어행위 이상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비언어적 행위에 관한 세밀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비언어행위는 Klopff and Cambra (1976)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중 특히 감정에 관한 메시지는 단 7%만이 언어로 표현되며 음성적 특징을 통해 38%, 그밖에 얼굴의 표정이나 신체적인 행동으로 55%가 전달된다고 한다. 이런 중요한 비언어적 특징들은

언어표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바, 영어의 분사파생부사는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행동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비언어적 행위에 화행적 해석을 가한 분사파생부사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8) accusingly, admiringly, appealingly, appraisingly, approvingly, comfortingly, confidingly, disapprovingly, grudgingly, menacingly, pleadingly, questioningly, reassuringly, reprovably

다음 (9)의 예들은 이들 분사파생부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 (9) a. She pointed suddenly at me, and every one looked at me accusingly.
 b. He glanced admiringly at the design.
 c. They looked at her disapprovingly.
 d. I loosen my grip on his arm and look at him pleadingly.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는 눈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눈의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제삼자의 행동을 전하는 언어표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눈의 움직임에 대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문장의 구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장치가 바로 분사파생부사인 것이다. 이들 영어 분사파생부사들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 동일한 형태의 분사파생부사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의 중심동사를 하나로 유지하면서 부사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분사의 기저동사를 활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10) ㄱ. 비난하듯이
 ㄴ. 찬탄하는 눈빛으로 / 감탄하면서
 ㄷ. 불만스럽게 / 불만스러운 눈으로 / 불만스러운 듯이 / 비난하듯이 / 못마땅하게
 ㄹ. 애원하는 눈빛으로 / 애원하듯이

이들 번역이 모두 동사를 기저로 하여 ‘눈’이나 ‘눈빛’이라는 명사를 추가하기도 하고, ‘듯이’를 추가하여 그러한 눈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여 영어의 분사파생부사가 전하는 의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물론, 화행동사가 주동사인 경우와 달리 이들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를 주동사와 통합하여 곧바로 ‘비난하였다’나 ‘감탄하였다’ 등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 이는 화행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3.4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사파생부사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언어적 화행으로 해석하는 대신 직접 그 내적 감정상태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분사파생부사가 그 예들이다.

- (11) accommodatingly, amusedly, annoyedly, bewilderedly, condescendingly, confidingly, contentedly, dazedly, determinedly, disbelievingly, disconcertingly, disorientedly, distractedly, exaggeratedly, excitedly, goodnaturally, haltingly, heatedly, insultingly, invitingly, longingly, lovingly, obligingly, pointedly, searchingly, temptingly, tiredly, unflinchingly, unhurriedly, unshamedly, wonderingly

비언어행위를 수식하는 경우도 화행을 수식하는 경우 다음으로 매우 다양한 분사파생부사가 사용되었고 밑줄 친 예들에서와 같이 양쪽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이들은 화행동사 수식 분사파생부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화행과 비언어행위는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그 범위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 (12) a. Luke has stopped gazing at the pictures of Suze and is staring broodingly into space instead.
 b. As my eye runs disbelievingly upward I see an unobtrusive man in overalls repainting the banisters.
 c. Mum gazes at me incomprehendingly for a moment before the penny drops.

d. Thanks, Teufel muttered, then smiled knowingly at Graham.

이들 분사파생부사의 기저동사들은 각각 ‘brood, (not) believe, (not) comprehend, know’ 등으로 화행동사는 아니나 (13ㄱ)의 ‘brood’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다음 (13ㄴ ~ ㄷ)의 밑줄 친 예들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화행동사의 형태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컨대 ‘disbelievingly’는 ‘믿기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서’ 외에도 ‘웬일인가 (말/생각)하고’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다.

- (13) ㄱ. 생각에 잠겨 / 생각에 잠긴 듯 / 골똘히 / 곰곰이 / 하염없이
 ㄴ. 믿기지 않아서 / 믿을 수 없어서 / 웬일인가 하고
 ㄷ. 알 수 없다는 듯이 /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ㄹ. 알고 있다는 듯이 / 알겠다는 듯이

즉, 영어에서는 화행동사로 표현되지 않는 행위도 한국어에서는 화행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는 비언어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되겠다.

그러나 ‘broodingly’의 경우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생각에 잠긴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표현하는 단일부사로 ‘골똘히, 곰곰이’ 또는 ‘하염없이’ 등이 활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분사형태에서 부사로 파생된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한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맞는 단일부사가 이미 갖추어진 경우가 되겠다. 이 또한 한국어의 부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영어의 분사파생부사가 화행동사 또는 비언어행위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았다. 분사파생부사

는 이밖에도 문장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내의 다른 형용사나 전치차구를 수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화행동사나 비언어행위 지칭 동사와 더불어 원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영어의 분사파생부사가 한국어에서 어떤 형식으로 번역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영어 분사파생부사의 형식을 주동사가 화행동사인 경우와 주동사가 비화행동사인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 주어화자의 화행을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주어 화자의 화행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사파생부사, 주어 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수식하는 화행지칭 분사파생부사, 주어행위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수반된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분과 부사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영어 분사파생부사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는 자체적으로 독립부사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나 영어의 분사파생부사를 모두 단일한 부사어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문맥에 따라 화행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의 경우 분사파생부사와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문장종결어미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동사를 중심으로 한 부사구나 절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의 분사파생부사가 화행동사를 수식하게 될 때 화자의 화행에 수반된 외적인 행위의 특성, 화행으로 표현된 내적 감정이나 태도, 화행의 효과 등의 다양한 의미범주가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준언어적 특성이 메시지의 전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언어현상을 연구하는 어떠한 논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서 영어 분사파생부사의 종류는 본 논문에 다 수록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거니와 다양한 문맥 속에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자료들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보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각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세밀하게 그 의미와 문장특성을 분류한 후에는 영한 번역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여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단순한 언어구조만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

구조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 한국어와 영어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언어외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정수 (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국.
- 이영옥 (2002) 「한국어와 영어 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1): 59-81.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London: Hodder Arnold.
- Hoye, Leo (1997) *Adverbs and Modality in English*. London: Longman.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obson, Sven (1975) *Factors Influencing the Placement of English Adverbials in Relation to Auxiliarie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____ (1978) *On the Use, Meaning, and Syntax of English Preverbal Adverb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Klopf, Donald William & Ronald E. Cambra (1996) *Personal and Public Speaking*. Englewood, CO: Morton.
- Marchand, Hans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unchen: Verlag C.H.Beck.
- Palmer, Frank Robert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P.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earle, John R. (1983) *Inten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P.

[Abstract]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Participle-derived Adverbials

Lee, Young-Ok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b-oriented Korean and noun-oriented English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ranslating English adverbials derived from present or past participles into Korean. Basically Korean is different from English in represen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hearer through various grammatical devices including sentential endings, special honorific vocabulary items, as well as various sentence adverbs. In English most of these inter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by metalinguistic elements like sentence adverbs or other grammatical mechanisms fit to the English characteristics of noun-orientedness such as adjectival modifiers or prepositional phrases. With relative dearth of plain adverbs, English has developed the adverb-producing process, thus making a fairly large group of derived adverbs based on the participle forms of verbs.

These participle-derived adverbs are used to describe the speaker's speech act or nonverbal communicative behaviors; they provide a kind of interpretation for the verbal or nonverbal communicative behaviors. As the Korean does not have an equivalent grammatical device for such participle-derived adverbs, various strategies of translation should be figured out. In many cases, the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participle-derived adverbs adopt the reporting frame even though the original English sentences do not contain speech-act verbs. Cultural consideration will be necessary for some deeper explanation.

▶ Key Words: derived adverbs, participle, speech act, translation strategies,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ve behavior

이영옥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yolee@khu.ac.kr

관심분야: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분석 및 번역,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